

2020 년 8 월 16 일 “창세기의 사람들(6) 노아와 방주(피조물)”(창 6:13-22)

오늘은 노아가 만든 방주와 방주 안 피조물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복습:

심판 -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혼돈의 파멸로 치닫게 하시는(역창조의 끝) 사건.

심판의 목적과 성격:

- (1) 새 창조(새롭게 하심) -> 궁극적인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의 완성
- (2) 진노 속에서도 사랑과 자비가 주관하심의 재발견.

이 심판의 의미를 모르면 인생과 신앙이 회의와 허무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믿어보아야 예측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감하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종결하실 것이라는 오해 속에 갇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1] 심판 속에서도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

마 24:38-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들은 심판의 참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관용구:

“내가 ~~을 행하고 이루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일(뜻)을 이루신 후에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 심판을 행하시는 말씀을 하신 후에 나옵니다.

6:9-10 ‘포로로 끌려가서 주님을 기억하고,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7:27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

12:20 ‘거주하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반면 구원을 이루심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36:9-11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의 폐허를 건설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끊임없이 말씀과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세계를 때때로 직접 다루시며 알게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것이었습니니다.

노아는 긴 세월동안 물에 띄울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므두셀라가 죽던 해에 쏟아진 온 세상을 채운 물은 모든 생명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러나 방주로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을 보고 진정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2] 진정한 노아의 소명

본문 9~22 절까지 보면 노아가 어떤 일의 과정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 절(단락의 첫 절).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22 절(마지막 절) 노아의 행위를 확증 -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 13 절부터 보면 노아의 의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말씀해 줍니다.

14, 15, 16 절 - 방주를 만들라

18 절 -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19 절 -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20 절 - 새, 집짐승, 길짐승도 살아남게 하여라

21 절 - 먹거리를 쌓아 두어라 -> 사람들과 짐승들 위해

우리는 종종 **벧후 2:5**(정의를 부르짖던 노아)에 근거하여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하고 회개를 외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한 소명은 전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명의 핵심은 방주 만들기였습니다(본문). 이 일은 오랜 시간 끊임없는 노고와 땅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귀한 소명은 가족들과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살아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먹거리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주 소명은 방주를 만들고 가족과 피조물이 함께 살아남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꼭 그대로 하였습니다(**22 절**). 이것은 방주 안에서 에덴회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방주는 심판 속에서도 첫 창조의 소명을 이루고, 소창조의 세계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남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목적은 창조의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동역자이며, 방주의 세계는 앞으로 새 땅에서 확장되고 펼쳐져야 할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볼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방주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자기 손으로 지었지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방주는 주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주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은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돌보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 먹거리를 나누는 일'입니다. 즉, 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공통적인 소명입니다.

<맺음>

'예수님 안'이라는 방주 안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와 같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창조의 회복의 소명을 이루는 축복의 길입니다. 모두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격려하며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노아의 소명의 핵심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무엇을 회복하고 위함이었습니까?
2. 심판아래 있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목적과 방식을 가지고 창조의 회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